

광양시, 중국 선전시 방문... '경제 분야 성과 풍성'

화웨이·텐센트·BYD 본사 방문 광양상공회의소·선전국제상회 우호 교류 등 협약 체결 성과 쓰레기 소각시설 벤치마킹도

광양시 민간경제대표단이 중국 선전시 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간경제대표단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선전시를 방문했다.

선전시는 홍콩 접경지에 있는 인구 1766만 명의 경제 특별구역이다. 1980년 개혁개방 초기에는 단순제조업으로 산업기반을 닦았고 이후 첨단제조업과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이 발전했다. 최근 금융 및 현대적 서비스업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낸 선전시는 현재 텐센트, DJI, 화웨이, BYD 등 세계적인 IT·전자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역량에 기반한 창업 인프라를 갖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방문단은 첫날인 5일 선전시의 중심부에 있는 연화산(花山) 공원을 둘러본 후 선전시청을 방문, 뤼항hao 선전 부시장과 만나 향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은 선전국제상회 방문으로 경제 교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광양상공회의소와 선전국제상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광양시와 선전시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대표단은 선전국제상회 방문 일정을 소화한 후 클라우드서비스·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클라우드서비스·SNS 플랫폼·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게임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텐센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를 찾았다.

대표단은 기업 관계자와 만나 자리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선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협회를 방문해 광양시 농·특산품 등의 유통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표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인 선전시 동부 환경보호 발전소(Eastern Environmental Protection Power Plant)도 방문했다.

선전시 동부 환경보호 발전소는 연간 약 150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웨리 소각



광양상공회의소와 중국 선전국제상회 관계자가 지난 6일 중국 선전국제상회에서 두 도시의 창업기업 지원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시설(Svardeverket)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광양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자원 순환시설(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발전소 관계자의 설명과 상호 문답을 통해 건립부터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셋째 날 일정은 중국의 식물 수집, 연구의 주요 기지 중 하나인 선후식물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양시 민간경제대표단은 마지막 날인 8일 선전시의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터 업체인 따공팡

'iMakerbase'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광양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인프라를 소개했고,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는 따공팡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체인지업그라운드 광양 개소를 앞둔 광양시, 포스코 관계자, 따공팡 기업 관계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선전시와의 20년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렸다, 방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례군,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 7박 8일간 중국 일대 방문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일대를 방문해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탐방에는 관내 중학생 중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광개토태왕릉비, 장수왕릉, 백두산, 환도산성 등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731부대 기념관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탐방이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갖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채로운 현장 학습은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탐방에 참가한 한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배운 것을 실천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과거의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 고흥군 과역면 복지공동대

고흥군 과역면은 지난 8일 복지공동대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청소와 정리 정돈 등을 진행했다.

혜택을 받은 어르신은 "수리나 교체를 하고자 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는 이웃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순천시, 8년 연속 인증기관 선정

순천시는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독서경영우수직장 인증'에서 8년 연속 우수직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순천시는 2017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8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달성했다.

시는 직원들의 자기 주도적인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사 내 책드림 문고 비치 △전 직원 희망도서 신청 △부서 내 직무 관련 도서 구입 △독서 통신 교육 △직원 대상 도서 추천서비스 △직원 독서 감상문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혜는 독서와 경험에서 나오는 만큼 시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일수록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9일 순천에서 개최된 제24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 시민, 관계자를 포함 95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천시 제공

제24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9500여명 참가

지난 9일 순천에서 개최된 제24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 시민, 관계자를 포함해 950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남승룡마라톤조직

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개최식 없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5년 만에 부활한 풀코스과 전국

적인 달리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3500명이 늘어난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안전을 위해 풀코스와 하프코스에는 6명의 응급조치요원과 17명의 페이스메이커가 배치됐으며 경찰, 소방,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제23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성료

쌀 소비 촉진 등 전시·홍보관 운영

보성군이 지난 8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농업인들이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23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번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농촌지도자보성군연합회, △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 △보성군농민회 △농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 △(사)쌀전업농보성군연합회 △(사)보성군4-H본부 △4-H보성군연합

회 7개 농업인 단체가 주관했으며, 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에서 주최했다.

주요참석자는 김철우 보성군수,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을 비롯한 도·군 의원,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단체 회원 및 농업인 등 96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보성군립극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농업인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과학영농 스마트 기술보급과 탄소중립·농작업 안전, 쌀 소비 촉진 등 전시·홍보관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키위 등 우수 농·특산물 30% 할인 판매관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4-H보성군연합회 회원들이 대회를 찾는 농업인들에게 녹차라떼 및 커피를 제공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울림마당에서는 축하공연과 농업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단체경기가 진행됐으며, 각종 경품 추첨도 이뤄졌다.

송민섭 기자

고흥 쌀 소비촉진 캠페인 고흥군·의회·NH농협 고흥군지부

고흥군이 고흥군의회, NH농협 고흥군지부와 함께 고흥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8일, 고흥 유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떡 나눔 행사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고흥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했다.

또한, 아침밥 먹기 서약과 고흥 쌀 구매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아침밥 먹기 생활화 등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관광객들은 "해풍을 맞고 자란 고흥 쌀이 밥맛이 좋고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지속적인 구매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자 축제와 연계해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쌀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과 고흥군의회, 농협이 서로 협력해 고흥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

